

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사북팀

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는 1986년에 설립된 민간 연구단체로서 역사학 및 역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반인 민중사반은 다양한 전공 및 연구주제를 가진 이들이 모여 '민중적 관점'으로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민중사반 사북팀은 2016년부터 사북 지역과 사북항쟁의 기록 작업과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.

“가만히 그 생각을 했어 ... 광부들을 대하는 그 인격적인 문제들, 그 다음에 임금 착취하는 방법. ... 그럼 이것을 바꾸자면은 ... 노동조합 밖에 못 바꾸지 회사를 바꿀 수 없잖아요.”

— 이원갑

“우예되든간 내가 조합원 편에 선다. ... 참 이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'아, 이게 참 이래가는 안 된다.' ... 조합원의 편에 선 그 마음이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.”

— 신 경

“기록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, ... 사라질 건 사라져야 되죠, 서서히 사라지되, 그게 기억되고 기록되는 다른 방식이 가능한 거 아닌가.”

— 황인오



사북항쟁 구술자료총서 1

1980년 사북 항쟁의 발발과 명예회복 과정

구술 | 이원갑 · 신 경 · 황인오
면담 | 김세림 · 김아람 · 문민기
장미현 · 후지타 타다요시

쟁료서
항자
복술
사구총

1

1980년 사북

항쟁의 발발과 명예회복 과정

구술

이원갑 · 신 경 · 황인오



면담자

김세림 | 연세대 사학과
김아람 | 한림대 글로벌융합인문학전공
문민기 | 고려대 한국사학과
장미현 |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'위안부' 문제연구소
후지타 타다요시 | 서울대 교육학과

섭외

사북민주항쟁동지회

지원

정선군, (재)3·3기념사업회, 국사편찬위원회

표지 그림



제작 | 화질령 (2018년)
작가 | 최승선 (1978년 강원 정선 출생, 서양화가)